

KIA 팬심 울리는 티켓 사기 활개



스포츠·공연 관람 수요 폭증에
암표 거래 그릇된 재테크 기승
중고거래 법 허점 속 피해 속출
좌석번호 없는 이메일력 현혹
“사기 당했다” 광산경찰 신고
암표 신고 5년동안 8배 급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한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暗票) 거래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포츠 관람권과 공연 티켓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거래를 제대로 여기는 행태가 확산하면서 수요폭증을 노린 사기까지 급증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광산)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는 5년간 8배 이상 늘었다.

과거에는 경기장이나 콘서트 장 주변에서 암표 판매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암표거래 신고가 지난 2020년 전국을 통틀어 6237건이었으나 지난해 5만 1951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말까지 5만 1405건이 집계되면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좌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4만 9982건으로 전체 97%에 달했다.

경기 일주일 전 열리는 입장권 판매가 종료되면 동시에 중고나라, 당근마켓, 트위터 SNS 등에는 2~3배까지 값을 올려 되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 관람 티켓의 경우 올해 KIA 타이거즈의 성적이 좋은 탓에 티켓팅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기 때문이다.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KIA 타이거즈 경기 티켓을 구하려 했던 A(31)씨는 사기를 당할뻔 했다.

A씨는 DM(SNS 메시지)로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고 계좌번호와 예매이력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채팅이 너무 많이 와서 바쁘다’는 이유로 계좌번호를 먼저 보내고 예매이력은 보내지 않았다.

마음이 급한 A씨가 보체자 그제서야 좌석번호가 없는 예매이력 사진을 보내왔으나 합성된 사진이었다. 그래도 경기를 보고픈 A씨는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를 시도했지만 역시 좌석번호 없는 예매이력만을 보낼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상거래 신고’를 통보해와 겨우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

광주북부경찰과 광주광산경찰 관계자는 “최근 기아챔피언스필드 티켓 관련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 신고와 고소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서 “온라인 사기수법도 매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KIA 타이거즈 경기 뿐 아니라 콘서트 티켓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B(여·22)씨는 지난 12일 좋아하는 가수 팬미팅에 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려 130만원을 사기당해 광주광산경찰에 온라인 민원을 넣었다.

B씨는 X(옛 트위터)에 올랐던 B1A4 멤버 정진영의 팬미팅 티켓 양도금을 보고 티켓 구매를 위한



당근마켓에 올랐던 KIA 야구 티켓, 채팅 상단에 ‘해당 판매자가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 정책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됐습니다’는 경고 문구가 띄어졌다. <독자 제공>

입금을 했다.

B씨는 1차로 티켓값인 7만 7000원에 양도비 3만 원이 추가된 11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먼저 알려진 계좌명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며 반환을 조건으로 재입금을 요청했고 11만원을 다시 입금하게 했다.

이후 X에서 해당 판매 계정이 사기인 것 같다는 글들이 업로드돼 수상하다고 느낀 B씨는 판매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B씨는 곧바로 다른 거래자를 알아봤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다. 두번째 판매자는 ‘한 좌석은 판매가 불가하다’며 두 좌석 기준 수수료 포함 20만 4000원을 입금하라고 해 B씨는 입금했다.

판매자가 ‘입체측 계좌라 한 번 더 입금해야 한다. 입금이 확인되면 전에 보낸 금액은 반환해주겠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한번 더 입금했으나 판매자는 티켓 대신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티켓 중고거래 사기는 법의 맹점 때문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젊은 층에서는 암표거래를 제대로 여기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따라 보이스피싱·스미싱의 경우 즉각 계좌 중지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신고 후 별리아 10일 가량이 지나야 사기 특정법의 계좌가 정지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의심 신고될 경우 즉각 계좌를 막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하기 전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구매하지 않거나 직거래를 하는 게 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정폭력 줄었지만 곳곳 인명 피해 동반한 사건·사고 잇따라

광주 인도서 분신 60대 심정지
신안에서 낚시하던 50대 사망
순천시 전동킥보드 타던 고교생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접수된 112 신고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추석 연휴 5일 동안 112신고는 일평균 1479.6건 접수돼 전년 추석 대비 2.3%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남도경찰청에 접수된 일평균 신고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대비 17.9% 감소했으며, 특히 가정폭력 신고(31% 감소), 아동학대(24.3% 감소)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교통사고는 지난해 광주에서 일평균 13.7건 발생했으나 올해 9.2건만 발생해 32.8% 감소했다. 부상자는 51.9%(23.3~11.2명), 음주사고는 83.3%(6~1건) 줄었다.

전남의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20.3건에서 올해 12.8건으로 36.9% 줄어들었으며 부상자도 일평균 37명에서 19명으로 48.6%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총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광주-전남에서 대형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

으나, 곳곳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70대 남성 A씨가 복부에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신안군 비금면 갈마도 인근 갯바위에서 50대 남성 B씨가 낚시를 하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B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갯바위 낚시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어망을 건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에는 북구 유등사거리의 한 인도에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3일 순천시 해룡면의 한 사거리에서는 10대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명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마락동 상무대로에서 30대 남성 C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C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고향의 따뜻한 정 안고 다시 일터로 18일 광주송정역에 추석 명절을 보내고 상경하려는 시민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군, 허위자백 강요 받은 공무원에 2000만원 지급” 판결

공무원이 직속상관 등으로부터 허위자백을 강요 받았다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다.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암군은 A씨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종용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은 2021년 6월 선거 홍보활동 금지기간임에도 전 전 군수가 국회에서 상을 받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군수 비서실장, 홍보과장 등은 직간접적으로 하급자인 A씨에게 ‘상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

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진술하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종용했다.

A씨는 결국 선관위 조사에서 ‘홀로 결정된 일’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반복하고 자백하면서 ‘힘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 전 군수의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견책 징계를 받았고, 전 전 군수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비서실장, 홍보과장 등은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